

“노후된 여수산단 안전 점검 시급”

‘여천NCC 폭발사고’ 여수국가산단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공사 기간 속도전·설비 교체 지지부진·인력 부족이 부른 인재 사측 이윤 논리에 안전 무시...정부·지자체 관리·감독 나서야

여수국가산단단지의 끊이지 않는 인명피해 사고는 속도전에 내몰린 공사기간, 지지부진한 노후 설비 교체, 부족한 안전 인력 등 전반적으로 인색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빚어낸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11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폭발사고를 계기로 열린 ‘중대재해 현장 토론회’에서는 1970년대 조성된 여수국가산단단지는 노후화가 심각해 국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각종 유해 발암물질 등을 배출하는 만큼 부족한 안전보전 인력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7일 노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여수 시청 앞에서 여수국가산단단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과 요구안을 내놓는 토론회를 가졌다.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여수국가산단 내 대립산업 폭발사고, GS칼텍스

정유공장 원유 유출사고 및 화재, 울산국가산단 내 삼성SMP 물탱크 폭발사고와 에스오일 원유 유출 사고 등 연이은 대형 중대사고는 기업들이 비용절감에 의한 이윤확보라는 전 근대적인 의식을 버리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이같이 석유화학산업과 제철산업 관련 기업들은 노후설비에 대한 개보수공사 주기를 연장하고,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설비 확충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도 사고 원인의 요인으로 꼽혔다. 여천NCC 출범 초기 대비 2021년 9월 기준 임직원 수는 증가했으나 임원 및 관리사무직 인원 증가(임원 12명 → 22명, 관리사무직 57명 → 255명)에 비해 생산직 인원(937명 → 711명)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직 인원 감축은 노동강도 강화로 연결되고 사고 원인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전국화학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주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을 비롯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여수국가산단단지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개선 필요사항을 사측의 자율개선에 맡겼다는 점이다. 교량·터널·항만·댐 등의 공공 일반 시설물은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국가가 필수 개선사항을 지정 개선하도록 했지만, 노후된 국가산업단지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결국 사측의 이윤의 논리에 따라 안전이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저가 낙찰제로 하청업체가 지정될 경우, 하도급 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기 단축에 사활을 걸어 안전은 뒷전이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가 가장 중요하지만 공기 단축 등의 성과 탓에 적정 시기에 부품교체가 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도 현실장의 분석이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지부지 부장은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심코 던진 담뱃불, 재난의 시작

광주 지난해 화재 743건 중 ‘꽂초 부주의’ 138건

광주에서 지난해 발생한 743건의 화재 가운데 138건이 담배꽂초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과 강원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 발생에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광주시 도천동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4개 동이 전소하고, 주변 건물 4개 동이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등 약 8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외부에서 주변 건물 관계자가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담배꽂초를 물건이 쌓인 쪽으로 털어 버린 후, 50여 분이 지나 최초 화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743건의 화재 가운데 부주의 화재가 369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37%(138건)가 담배꽂초 화재였으며 음식물조리 17%(64건), 사용부주의 13%(51건) 등으로 분석됐다.

담뱃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술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흡연하거나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가 발화,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버린 쓰레기통에서 발화되는 경우 등이다.

담뱃불의 온도는 약 200~300도이며, 피우고 있을 때에는 약 500~800도 달한다. 따라서 보행 중에는 흡연을 삼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담배꽂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병원, 환자용 모바일 앱 오픈

진료예약·결제·보험청구 등 모든 절차 해결

전남대병원이 환자의 진료예약·결제·보험청구까지 가능한 ‘환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픈했다.

전남대병원은 이일부터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환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 진료 예약부터 실손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접수창구에서 대기 없이 앱에 접속해 진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진료과별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의 진료일정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가능한 일정과 시간을 선택해 앱으로 진료를 예약할 수 있다. 수납은 물론 실손보험 청구도 모바일로 가능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19년 환자용 모바일 앱을 오픈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빛고을전남대병원·전남대치과병원도 오픈해 통합·운영한다.

안영근 병원장은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화순전남대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전남대치과병원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앱을 통해 4개 병원의 이용이 편리해지는 만큼 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남대병원’ 검색 후 다운로드하면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년새 585명 줄어

1815명 남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지난 1년 만에 585명이나 줄어들어 현재 1815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815명이며, 여성은 116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1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 193명, 충남 183명, 전남 178명(여성 7명), 서울 177명, 경북 160명, 경남 140명, 강원 79명, 인천·충북 각 78명, 부산 76명, 대구 61명, 광주 50명(여성 8명), 대전 39명, 울산 15명, 제주 10명, 세종 7명이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동원된 여

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마저 현재 90세에 이르는 등 고령이 된 피해자들은 해마다 세상을 떠나고 있다.

생존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075명, 2017년 6570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지난해 2400명 등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 대부분이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1년에 80만원에 그치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이 된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피해자들이 급격히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승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



운동하고 청소하고 7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천 일대에서 ‘우리동네 한바퀴, 쓰담견기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찾아가는 어린이 5·18민주화운동 교실

5·18기록관, 내달 희망학교 방문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월항쟁’을 주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층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5·18민주화운동 교실’을 4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관내

학교가 연계한 지역사회 협력 사업으로 마련됐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영상 및 사진 등의 기록을 통해 민중항쟁의 정신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희망 초등학교에 한해 진행되며, 14일부터 참여학교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를 참고하거나 관리과(062-613-8209)로 문의하면 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이번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5·18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